

멩진국 할마님 본풀이

멩진국할마님은 천왕불도(天皇佛道)할마님, 지왕불도(地皇佛道)할마님, 인왕불도(人皇佛道)할마님. 공(空) 씨. 계난, 공방에 떠다닌다 해서 공(空) 씨, 방방곡곡을 다닌다 해서 방(方) 씨, 서역불법 할마님이라 해서 서씨여리(昔氏如來). 계난 공(空) 씨, 방(方) 씨, 서씨여리 인간 멩진국 사암불도 할마님 허영 해된.

할마님은 옥황에 명전대왕따님아기로서, 하도 열렬하고 똑똑하고 으망지 난, 옥황상제의 영을 받안

“널랑 인간에 내려강. 인간 즈순덜 포테(胞胎)도 시겨주곡, 해산도 시겨주곡, 경 허영 법지법을 마련 허라.”

허연. 계난 내어주는 건 보니까. 할마님은 남방사주(藍紡紗紬) 저고리에 북방사주(白紡紗紬) 말바지 입고, 열두복 대홍대단(大紅大緞) 훗단치마 입고, 물명지(水禾紬) 장장옷에 단추도 열두 단출 들고, 이제 금주란 철죽대, 은주랑 만족대를 짚고, 춤썰¹⁾ 혼 제, 은 ㄱ췌²⁾. 그걸 들런 만산족두리 둘러썩, 나막창신에 웨코³⁾ 접은 백농보선 신고허연. 이제 이구산으로 허연, 할마님은 정월 초사흘 날, 정월 초사흘 날 인간에 내려산, 이구산으로 딱 내려산보난,

할마님 들어갈 딴 보난, 이제야 뭇 멧 층경 집덜 막 나오주만은. 외국 같은 딴 백 층도 나오고 허주만은. 그 옛날 구한국 시절이난, 십이 층경 집이 최고 높은 생인고라. 십이 층경 집을 지언. 누룩으로 다 성을 싸고, 이제 문 베끼던⁴⁾ 보난. 걸레삼승⁵⁾, 업게삼승⁶⁾, 구덕삼승, 일흔으담 보살청덜, 창 안네도 일흔으덱, 창 베끼디도. 계난 창 안네, 창 베끼디엔 헌건. 문 안네, 문 베끼디엔 헌 말이주. 이 창문 안네와 베끼을. 경 허연. 이젠 잇이난, 할마님은 쏘옥허게⁷⁾ 금법당더레 들어산. 글로 들어간 금법당 잇이난. 그디 들어간 할마님은 앓아 천리를 보고, 사 만리를 보난. 아, 가난헌 집이도 자손이 귀하고, 막 잘사는 부잣집이도 자손이 귀하고. 계난

1) 춤썰: 명주실.

2) 은 ㄱ췌: 은 가위.

3) 웨코: 보선 코가 하나

4) 베끼 딴: 밖에는.

5) 걸레삼승: 아기 업는 포대기의 수호신.

6) 업게삼승: 업저지의 수호신.

7) 쏘옥 허게: 쏙 하게.

‘아이고, 이거 자손을, 이거 주젠허민⁸⁾ 가난헌 자손에도 강 포테(胞胎)를 쥐야 뉘 거고, 이제 부제칩이 즈순에게도 간 포테(胞胎)를 쥐야 뉘로구나.’

헤연. 할마님은 이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경을 읽은 거라. 할마니가 경을 익언. 이제 앓아 천리를 보고, 사 만리를 보양. 가난헌 즈순에게도 포테(胞胎) 주고, 이제 부제칩이 자손에게도 포테(胞胎)를 주는다. 하루 앓아 천 명을 포테(胞胎)주고, 해산을 시기젠 허면, 하루 만 명을 해산을 시키는다.

첫째는, 아방 몸에 석 덜 열흘 붉은 피를 빌고, 경 허연. 빼를 빌고, 이제 아호열 덜을, 어멍 몸에 이제 흰 피를 빌어. 게난 석 덜 열흘 백일이 넘어가민. 아기, 이제 인간 사름으로. 이제 다, 할마님이 고운 얼굴, 고운 매치⁹⁾를 그려. 아홉열 덜 받은 덜은 돼민. 원래는 애기가 우이로 앓았단, 우이로, 머리는 여기 잇고, 영 앓았단. 아홉 덜 돼민 여기서 돌아, 돌아 거꿀로 애기가 내려강, 머리는 밑으로 가는 거라. 겐 할머님이 여기서 영급을 줘 애기도 숙언. 경 허연.

이제 할마님이 그 열 덜 준삭(準朔) 차면 아무리 발전되고 뭐 헤엇젠 헤도. 할머님에서. 뭐 요즘 제왕절개 허면 애기 나는 거 뭐 허주만은. 옛날 식으로 허면, 할마님이 힘을 안 주고는 애길 날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 인간 뭐헌덴 헤도. 게난 할마님이 딱 열두복 대홍대단(大紅大緞) 치메 벗어 걸어두고, 딱 즈순¹⁰⁾ 포테(胞胎)뉘언 애깃배 맞추는디 들어간 보난. 막 공단 이불, 서단 이불, 원앙칭칭 잣베게 폐와놓고 허연 잇이난. 할마님은 그거 다 걷어 뉘. 북덕자리 출런. 옛날엔 보리낭 깎안. 보리낭 깎안, 거기서 이제 할마님이 애기 어멍 상가메¹¹⁾ 머리를 술술허게 연세 번을 썰어두언.

이제 어멍 오모순이¹²⁾ 알더레 술술허게 할마님이 썰어 가난. 게난 아들은 낳젠허민 일주일이나 삼일 전에 이슬을 내리는데, 붉은 이슬이 내리고. 좀 붉으름허게 줄 잇게끔 허영 붉은 이슬이 내리고, 뉘은 낳젠 허민 흰 이슬을 내려. 경 허연 할마님이 들어간. 이제 애기 어멍 오모순이 알드레 술술허게 쓸고, 할마님이서 힘을 주게 헤가믄. 이제 아끈 장식, 한 장식.

8) 주젠허민: 주려고하면.

9) 매치: 맵시.

10) 즈순: 자손.

11) 상가메: 머리의 가마.

12) 오모순이: 오목가슴.

애기 어떻 열두빼에 다 무너지게 해연. 애기 어명이 아끈 장식 힘을 내드로민¹³⁾, 할마님이 인간더레 애기를 탄생허젠 허민. 할마님 손콥으로 애기 붓을¹⁴⁾ 내 튼엉, 영 허게시리 탁 내 튼으면, 애기 머리 받은물 물 씹어지명¹⁵⁾ 애기가 태어나는 거라.

젠 태어나민 할마님에서 이젠, 옥황에서 올 때 춤썰을 혼 제 가져 오난, 그 춤썰로 애기 베포롱줄¹⁶⁾ 묶엉, 할마님이 은ㄴ췌를 가져 왓주게. 게난 ㄴ췌로 애기 베포롱줄 끊엉, 게 즈친¹⁷⁾ 거, 이제 내완 곱 갈란. 즈친 거엔 현 건 태반. 태반 이제 곱 갈라된, 애긴 몸모욕 시견. 할마님이사 애기광, 어명광 곱을 딱 갈랑 눅지면, 사흘 돼민, 애기 낭 사흘 돼민. 이제 치셋메¹⁸⁾ 지언 올리곡, 속 숲안¹⁹⁾ 애기광 어명광 몸모욕 시기고. 또 일뤄 돼민 치셋메 올리고. 또, 이제 속 숲안 몸모욕 시기고, 경 허영 허민. 세 설 돼민, 할마님이 초걸렛벨²⁰⁾ 벳기고, 또 일곱 설 돼민 이걸레 벳기고, 열다섯 십오세가 돼면 삼걸렛베를 벳경.

이젠 할마님이 머리 벳경 내는 거라. 이제 성인이 된 거라. 열다섯이 돼면. 젠 성인이 돼면, 할마님은, 거난 애기들 열다섯 안네엔 할마님이. 할마님은 언제 상 받느냐면, 초사흘날, 초일뤄, 열사흘, 예일뤄, 쓰무사흘, 쓰무일뤄. 경 혼 들 앗앙 으섯 번 할마님이 상을 받고. 할마님에서가 이제 꽃을 취급을 허젠 허면, 번성 꽃을 허영. 꽃을 싱그면 동더레 벌은 가지는 동청묵, 서더레 벌은 가지는 서백금, 남더레 벌은 가지는 남장수, 북더레 벌은 가진, 이제 북하수를 시겨권. 거 허는다. 할마님에서가 그 애기 날 때에, 애기 날 때에 옛날은 방에서 막 등글명게²¹⁾, 자기 떳대로 등글명 허당 애길 나면, 그 애기가 머리가 동쪽드레 헨 애기가 나면.

‘아따, 이 애긴 동더레 머리헨 난, 잘 살키여.’

경 허고. 서더레 머릴 헨 나민,

‘요거 서가난(西家難) 험직허다.’

허고. 남더레 머릴 헨 나민,

13) 내드로민: 내지르면.

14) 붓을: 태반.

15) 씹어지명: 쏘아지면서.

16) 베포롱줄: 땃줄.

17) 즈친: 압편. 까투리. 여기선 여자아이를 뜻함.

18) 치셋메: 애기를 분만한 다음 애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방의 구석이나 벽 위에 차려두는 상에 올리는 메.

19) 속 숲안: 쑥 삶아서.

20) 초걸렛벨: 아기 엮는 포대기.

21) 등글명게: 땡굴면서.

‘남장수(南長壽)가 돼키여.’
경 허고. 북더레 머털 헨 나민,
‘아이고, 이거 공이나 헨 드러사 허키여. 이거 북단명(北短命) 험직 허
다.’
경 허영 이제 허는 거. 할마님에게서는 애기를 키우젠 허민.
‘이제 물웨²²⁾ 크듯, 당베치²³⁾ 크듯, 넘늬물²⁴⁾ 키와 가듯, 버룻 버룻허영
할마님에게서 잘 키와 줍센.’
허영 이제 우리가 할마님안테 불도맛이도 하고, 할마님안테 공 들이는
거, 이것입니다.

22) 물웨: 물외.
23) 당베치: 배추.
24) 넘늬물: 나물.